



필리핀 S. 211기 최초 획득

필리핀 공군(PAF)은 9월중에 최초로 SIAI-Marchetti의 S. 211기 초등제트훈련기/경공격기를 획득하게 될 것이며, 금년말까지 매월 1대씩 3대가 추가도입될 것이다.

최초의 4대는 완제품으로 획득되며, 이후 필리핀이 주문한 14대는 조립을 위해 Kit 형태로 인도될 것이다. 조립은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항공개발단(PADC)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과 필리핀 항공개발단의 기술자들은 이미 이탈리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9대의 S. 211는 Laguna 지방의 Lipa市에 위치한 Fernando 공군기지의 제100훈련비행단에 배치될 것이다. 나머지 9대중 일부는 Luzon 지방의 Basa 공군기지의 제5전투비행단에서 훈련기로서 운용될 예정이며, 그 나머지는 지상 근접지원 항공기로서 Cebu의 Mactan 공군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필리핀 공군은 기존의 7대의 F-5A와 2대의 F-5B로 구성된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Northrop의 F-5A 전투기 4대를 추가로 획득하였다.

이 4대의 전투기는 미국과의 군사원조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초에 획득된 것으로, 대만 공군(TAF)에서 운용되던 것이다.

필리핀이 보유한 모든 F-5A기는 제5전투비행단의 제6 전술 전투비행대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 대대는 통상 Luzon 지역의 Basa 공군기지에 머물고 있다.

F-5기를 대체하려는 필리핀 공군의 계획은 1991년이나 1992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천5백만~3천만불(韓貨 1백70억~2백억원) 상당의 MD사 MD 520 경공격/스카우트 헬기 20~22대의 도입을 美 해외군사판매(FMS) 차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계약은 금년말 이전에 체결될 것이며, 1990년대 중반에 획득될 것이다. 필리핀은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9년 국방예산에는 더 많은 항공기 획득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호주 항공창의 Nomad 22B STOL 다목적 항공기 4대의 구입이 포함되며, 현재 보유한 6대(4대는 운용가능)와 함께 운용될 것이다.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Hawker Pacific社가 될 것으로 보인다. *

〈Janc's Defence Weekly 1989. 9. 9〉